

June 06 희락,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 요한복음 15:9-11; 야고보서 1:1-5

성령의 열매는 모두 '사랑'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희락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완전하고 충만(complete, NIV)합니다(요 15:11).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물들을 보며 한참 즐거워했는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순간 동물도 놀이기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아보호소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나 손을 잡는 순간, 다시금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요 15:11). 사랑은 기쁨의 근원이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기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불만족스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독생자를 내주실 정도의 값진 존재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참 기쁨은 환경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약 1:2-3).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지하시며 성령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롬 8:37).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 ② 어떤 기준으로 나와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